생애 최고의 사건 써먹기

(미가 4장 1절~13절)

1. 끝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애 최고의 사건 써먹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애 최고의 사건 써먹기'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생애 최고의 데이트가 있었습니까? 생애 최고의 기록이 만들어진 날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나 분명히 최고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사 속에 묻히고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기억 속에서는 최고이지만 현재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나에게 쇄도해 들어오는 눈앞에 사건들의 무게를 물리치고 내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역사에 묻히지 않고 언제나 최고로 유지될 사건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십자가사건이 최고의 사건인 이유는 내 생애의 모든 순간들을 최고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사건은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순간이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어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최

고로 여겨졌더라도 오늘은 다시 오늘이 최고로 좋다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최고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마치 바다에서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생애의 모든 순간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기에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날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끝날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곧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온 산이라고도 일컫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높이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산들의 꼭대기라 할 만한 높이는 아닐 것입니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다고 여겨지는 산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앞에서 모든 산들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 성전이 온 인류와 만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끝날이라 표현 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성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써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토록 위대한 이유는 바로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선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저 성전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전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성소에 법궤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곧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마음에 다른 이름이나 사건들이나 형상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상번제가 성전의 두 번째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이름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애인, 직장, 건강 등 갖가지 이름들이 담깁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마음에 담기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죽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이 상번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존재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절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리라는 뜻이 됩니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의 생애동안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한 십자가 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곧 상번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습니다. 성전에서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는 선민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항상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이름이 가득 차있는 상태를 상번제의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번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의 참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한다면 선민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민들의 삶이 복지로 유지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방식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나의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의 현재성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장사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담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다른 모든 이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차례 일어난 사건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만민에게 구원의 사건

이 되는 이유는 지금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나의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은 지금 나의 죽음이 됩니다. 이로부터 생의 모든 순간은 최고의 순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절의 하반부에서 2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것은 우리에게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자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항상 내게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을 십자가로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뿐만이 아니라 이방민족과 열방들이 성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러한 이방 사람들 중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저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보편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삶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상번제의 실천과 같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만 들어있던 것을 떠올리며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온 것을 죽이는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책임져야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수고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할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는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들판을 달리는 말에 비하면 작고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비는 나비로써 최고로 창조하셨고 말은 말로써 최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생애에서 하찮은 일이든 큰일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이목을 집중할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만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책임지시는 하루하루가 최고라는 느낌이 듭니다.

늘 그렇듯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라며 다른 이름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승진에 대

해서 죽고, 과장님과 부장님의 꾸중에 대해서도 죽고, 입사 동기들의 경쟁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오직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듯이 마음에 하나님만을 남기자 어느덧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서 밥을 짓다가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인생 최고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루를 이끌어 가심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실제로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몰려오게 될 이방인들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은 얻은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볍든 무겁든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마음에서는 최고라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넓히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을 위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지거나 이룬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겼기에 십자가 사건은 위대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침 흘리며 갖고 싶어 하는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비유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다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방식대로 부르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 본문 5절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라는 부분에 대해 주석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일컫는다고 해석합니다만 이것이 꼭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이란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실 때의 다른 신들이 의미하는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 또한 그것들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는 선민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고 또 어떤 사

람에게는 건강이 신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돈과 건강이 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상의 이름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돈을 벌려는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의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전의 의미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지성소에 법궤만이 들어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가의 회장님은 돈이 기쁨이 된다고 믿고, 어머니는 자녀만이 기쁨이 된다고 믿고, 사랑하는 애인이 기쁨이 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서 가사도 해야 하고 학교도 가고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가사를 하면서도 최고의 순간이 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에 최고의 순간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최고의 순간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사건을 써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떠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외의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대해 죽은 자임을 고백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죽은 자가 된 상태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과 그 자리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진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써먹음으로써 내 생애의 모든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단단히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